## 지역 소식통

### 정읍시, 추석맞이 민생 안정 점검 소통회의 개최

정읍시가 지난 9월 30일 구절초 회의실에서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연내 중점사업 추진 상황과 추석맞이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안과 민생 대책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제18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 △새암달빛광장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등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이 보고됐다. 시는 연내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읍·면·동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 위문과 경로당 물품 지원, 도로 및 가로등 점검 등 민생 안정 대책과 안전관리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다짐하는 자리도 이어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 레드와인 등 사전 판매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변산해수욕장에서 3일간 열리는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 '레드와인 페스타' 와인패스 사전 판매가 진행 중이다.

와인, 재즈, 그리고 붉은노을을 주제로 펼쳐지는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 '레드와인페스타'는 부안 지역와인은 물론 세계와인, 논알콜 음료까지 즐길 수 있는 부안붉은노을축제 대표 프로그램이다.

패스는 와인패스(지역와인 2잔+세계와인 2잔 및 페어링 안주), 노을패스A(지역와인 2잔+세계와인 1잔+논알콜 1잔 및 페어링 안주), 노을패스B(지역와인 2잔+논알콜 2잔 및 페어링 안주), 총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어 방문객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통해 구매하면 현장 판매가보다 5,000원 저렴한 가격으로 「레드와인 페스타」를 즐길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2025 세계유산축제 오늘 개막

## 고창군, 고인돌공원서 갯벌마을 주민 등 1000여명 참석… 22일까지 이벤트 풍성

고창군(군수 심덕섭)과 고창군세계유산보존협의회(위원장 박현규)는 오는 2일 저녁 7시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고인돌공원 특설무대에서 '2025 세계유산축전 고인돌, 고창갯벌'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죽림리 매산마을 주민과 갯벌마을 주민을 비롯한 관람객 1000여 명과 세계유산축전을 주관하는 국가유산청,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이귀영 국가유산진흥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개막식은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죽림리 고인돌군을 배경으로 '고창의 보물, 사람과 자연을 그리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고창농악보존회의 길놀이와 동리문화사업회의 판소리 공연, 고창초등학교 늘푸른 합창단의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고인돌과 갯벌의 세계유산 가치를 담아낸 주제영상과 전문 무용수들의 고인돌의 제작 과정과 의미를 전달하는 주제공연이 펼쳐진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인돌과 고창갯벌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는 고창군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개막식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체감하고, 특별한 감동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세계유산축전 고인돌, 고창갯벌'은 10월22일까지 22일간 고창고인돌공원과 고창갯벌 일원에서 진행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인 '고인돌 세움학교'는 학교 수업 형태의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고인돌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수업 완료시에는 졸업장까지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한가위, 전통시장서 장보기 함께해요

## 부안군,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부안군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물가 급등과 경기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에서 300여명이 참여하여 명절선물과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및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1일 부안상설시장에서 진행되는 '온누리상품권 농축산물 환급행사'와의 병행추진으로 장보기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장보기 행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들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하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일부터 5일까지 부안상설시장에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병행 추진하고, 귀성객 및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3일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부안마실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추석 명절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전국 일자리대상 첫 '우수기관' 선정… 장관상 수상

## 정읍시, 전국 243개 지자체 평가서 일자리정책 우수기관 영예

인구 감소와 열악한 고용 환경이라는 위기 속에서 정읍시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빛을 발했다. 시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으로 3년 연속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기관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읍시는 지난 9월 30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 상은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한 해 일자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 권위의 시상이다.

이번 수상은 민선 8기 일자리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된 결과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정읍시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72.4%로 전년 대비 0.6%p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고용률(69.4%)보다 3%p 높은 수치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수는 1200명 증가한 2만 4500명을 기록했고, 여성 고용률 역시 2.6%p 오른 65.4%를 달성하며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일자리 세부 전략에 대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 정량적 성과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 일주일 만에 74% 지급

고창군이 '군민활력지원금' 지급 개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4%에 해당하는 73억원 규모가 군민에게 신속히 지급됐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기준으로 군민활력지원금 신청자는 3만6698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73.2%를 차지했으며, 지급된 금액은 총 73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정부 2차 민생소비쿠폰 지급까지 더하면 총 111억 원 규모의 재정이 군민들에게 지급됐다.

군은 지난 9월 22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민활력지원금과 민생소비쿠폰을 함께 지급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 대규모 지원금이 단기간에 풀리면서 군민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지역상권에 활력이 확산되고 있다.

군은 잔여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급을 완료하는 한편, 소비쿠폰 사용 실적을 면밀히 관리해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되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한달 간 고창사랑상품권을 최대 20% 특별할인 판매한다. 월 구매한도도 100만원까지 확대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

또한, 고창 전통시장에서는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과 기간 중 무료셔틀버스도 매일 운행하는 등 명절 장보기에 나선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적극행정 행안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 적극 · 혁신 행정 분야 2관왕

정읍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활용 △홍보·확산 노력 △우수사례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한 종합평가단의 엄정한 심사 결과 정읍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광역 1개소·시 2개소·군 2개소·구 2개소 등 단 7곳만 선정된 우수기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정읍시는 9월 중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도 기초지자체 행정혁신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수상으로 올해만 적극·혁신 행정 분야에서 2관왕을 달성하며 적극행정 혁신선도 도시 정읍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전 공직자가 시민 중심 적극행정을 꾸준히 실천해 온 결실"이라며 성과 중심의 적극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10월 경로의 달과 제29회 노인의 날(10월 2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정읍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정읍시는 1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윤준병 국회의원·박일 시의회 의장·지역 기관 단체장·지역 어르신 등 7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노인강령 낭독으로 시작됐다. 이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모범노인과 노인복지기여자 등 유공자 24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2부에서는 정읍시립국악단이 축하공연을 펼쳐 춤과 가락으로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다.

환영사에서 이호춘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장은 "어르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나라도 행복하다"며 "항상 청춘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